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불서 안 읽는 풍토

지난달 26일 김정화 보살(45)은 불교전문서점인 아시아문에서 법문집과 함께 쓰여졌다는 경전류 10권을 샀다. 김보살은 두 달에 한권씩은 사서 읽어 나가는 습관을 기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책들을 주위의 도반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눠준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한국인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불자들이 더욱 책을 멀리 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민족사 문화사장이 한국출판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연구>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94~97년 4년간 종교부분 전체 신간 중 기독교 85.1%에 비해 불교는 12.4%였다. 또 97년 한국출판연구소에서 불자들의 독서량은 1년에 평균 0.8권, 기독교인은 15권, 천주교인은 4권이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대다를 자랑하는 불자들이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책 읽는 풍토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자들은 스님 법문만 들으면 그만이고 기도는 매일 하더라도 불서를 매일 읽겠다는 생각에는 안착해 있다. 대부분의 스님들 역시 신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많은 신도들이 드나드는 사찰에 번듯한 도서관 하나 없는 곳이 허다하다. 또 상당수의 불자들은 딱딱하고 어려워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 읽기 어려운 책이 손에 잡힐 않고, 서로가 책을 읽지 않으니 스스로가 뒤떨어진다는 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고는 문화전쟁 시대를 대비하기는 커녕, 불교 고유의 공부하는 전통마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확실히도 슬프다. 스님들은 좋은 책을 스스로 읽어보고 자꾸 신도들에게 권해야 하며 불자들은 시간을 정해 책임을 완수할 줄 알아야 한다. 출판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 폐교가 절로 변했다

나주에 '성덕사' 개원...어린이·청소년 수련도량으로

호남지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문 수련도량 '성덕사'가 개원했다.

광주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 무등스님은 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에 위치한 폐교 봉황초등학교를 덕곡불교를 인수, 1년여의 수리를 거쳐 10월 22일 삼존불 정안 및 수련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들어갔다.

성덕사는 특히 초등학교를 인수해 도량을 개설함으로써 학교라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체육시설이 마련된 운동장 등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어 '폐교이용'이라는 새로운 포교 전략을 보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대지 1천5백평에 교실건물 1동, 관사, 부속건물 등이 있는 덕곡불교를 지난해 7월 인수하여 법당과 수련원으로 개조한 성덕사는 교육관 2실과 법당 1실, 식당, 목욕 및 세면시설, 방사 4개, 체육시설이 마련된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 성덕사는 앞으로 '친근한 불교전하기'를 모토로 주말 수련회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동체대비사상을 배우고, 불교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비범하면서도 예절 바른 불자로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덕사 주지 무등스님은 "외아들 외딸로 자라 자기중심적인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부모존경에 근거한 효경(孝敬)사상을 바탕에 두고 신세대 문화와 전통불교문화를 접목한



○폐교가 새색 전법도량으로 거듭났다. 사진은 호남유일의 어린이·청소년 도량으로 새롭게 문을 연 성덕사의 개원식 모습.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동체대비사상을 배우고, 불교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비범하면서도 예절 바른 불자로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무등스님은 어린이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지도자교육을 한달에 2회 개최하여 능력 있는 지도자 양성에도 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0613) 331-0805.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 전사법등 불교관련법 정기국회서 통과요청

조계종, 불자지원 요청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과 중앙총회 의장 법등, 부의장 청화스님은 10월 29일 3당 불자지원단을 서울 63빌딩으로 초청,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3당 불자지원단은 이번 정기국회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스님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국가행방권의 민간이양인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계종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농림부에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지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자연유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통사찰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성운 기자

### 정화회의 항소 각하 [서울고법]

총무원 "직무대행 부존재 법원서 입증" 정화회의 "대법에 상고하겠다"

정화회의측 정영스님이 낸 총무원장 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원고 정화회의측의 항소에 대해 "정부승수한 원고가 예외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총무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1심 판결의 결정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황도건 직무대행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입증한 것"이라며 "정화회의 항소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유효하다는 것

### 불교TV이사회 "허사장 퇴진결의"

직무대행에 이수덕 전무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 폐쇄 등 노사 갈등의 위기에 놓인 불교TV가 이사회를 열고 허문도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불교TV이사회는 10월27일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허문도사장의 퇴진을 결의하고 이수덕전무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선임,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인준키로 했다. (권민 기자 3면)

한편 허문도사장은 "나의 퇴진을 비롯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족수 미달과 의결안본인이 정회를 선포한 후에 결정된 사항이다"며 "상임법위배되는 만큼 무효이며,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8일 파업을 종료하며 같은날 오후5시를 기해 이수덕 권한대행은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 종단협 대북 의류지원키로

조불련서 지원요청

종단협의회(회장권한대행 인곡)는 10월 27일 4차 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겨울옷 보내기운동을 결의키로 했다. 종단협은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종단협은 대북 활동 지원의 시기 및 규모 전달방법은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상임 집행위원장 명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종단협은 대북지원기금으로 조성된 2억3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의류지원에 사용키로 했으며, 각 종단별 지원은 종단에 일임키로 하되 전달창구는 종단협으로 단일화키로 했다. 조불련은 지난 22일 삼산진

서기장 명의로 조계종 대교추진위원회로 서한을 보내 활동지원 기금을 요청했다. 조불련은 또 "서로 명분있게 만나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정적인 회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남북불교인의 만남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단협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회원총대 기입 심사위원단을 5개 회장종단과 4개 이사종단 대표 등 3인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15일 이후 가입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종단협 이사회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경도회의와 불교사회복지총합 발간에 따른 보고를 들었다. 정성운 기자



○영호스님 ○동산스님 ○금오스님 ○효룡스님 ○목달스님 ○탄허스님 ○자운스님 ○월산스님

### 20세기 고승메달 2차분 출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의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 곁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조계종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지름 8cm)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두고 친견할 수 있습니다. 고승기념메달은 20세기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자성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8분 제작에 이어 이번에 2차 8분을 제작 완료하고 일반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장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 ◇ 소장 스님: 1차: 만공 용성 만해 함암 경봉 천담 고암 성철 2차: 영호 동산 금오 효룡 목달 탄허 자운 월산
- ◇ 보급: 날개 각 5만원·8분 1세트 40만원(500개 한정)
- ◇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722-4162
-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종도대중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존경하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1600년, 민면한 역사를 머금은 한국불교의 장차종단 조계종이 지난해 불구의 악몽이 재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내보이게 된 것은 심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그 경위와 과정이 어찌 되었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불교도에게 깊은 사부대중에게 조계종단의 명칭을 책임지고 있는 小納은 懷德로써 그 禮를 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한국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심려와 우려를 안겨 드린 점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포함합니다.

### 불교의 自主權과 法統수호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종단은 사대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슬개쁘게 진행되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힘과 지혜는 우리 조계종단의 법통과 자주성이 일부의 非法한 무리들이나, 외부의 사법적 농단에도 한 걸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중정예하, 그리고 원로회의 大德 큰스님들의 慧命을 받들어 각 교구본사, 중앙총회, 집행부가 중심이 된 "법통수호 대책위원회", 그리고 "법통연대회의"를 중심으로한 재가대중은 우리의 자주성과 법통을 심각하게 유린한 금번 사태의 본질을 적시하고, 이에 覺宗의 一心으로 단합하여 사태에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불교의 자주적 法統을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준 사부대중의 힘과 지혜는 어떠한 외부적 힘이나, 내부적인 충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법통과 자주성을 護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소납은 불교의 자주권과 법통을 수호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단합된 오늘날의 노력은 불교중흥의 값진 자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부대중이 보여준 힘과 지혜, 단합과 단결은 금번의 사법사태를 正法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마무리하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불교에 대한 보다 깊은 自覺과 覺察의 계기로 승화한다면 조계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법적 절차의 欠缺"을 아무런 동요나 혼란이 없이 여법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주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예기치 않게 찾아온 혼란과 어려움이었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여 한층 새롭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사부대중여러분!

필생을 수행과 교학연구, 그리고 대중교화를 위해 정진하는 동안 본인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加被를 입어 왔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입은 한량없는 加被에 보답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지 9개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번의 사태는 본인에게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본인의 不慮함을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실로 본인의 願力과 德化가 미치지 못하였음을 뉘우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상심으로 돌아가 懷德하고, 또 懷德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종단의 자주성과 법통을 수호하려는 사부대중의 원력과 합성이 하늘에 달하는 것을 보고 소납의 이러한 짧은 생각을 贊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종단의 자주성과 법통을 공고히 하려는 사부대중의 결의와 원력이 함께하는 한 소납은 종단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납에게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늘 보여준 사부대중의 결의를 부처님의 言으로 알고 熱과 誠을 다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和合과 共議에 의한 종단중흥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의 계기가 우리종단이 처하고 있는 懷德와 安逸, 貪心과 無秩序에 대한 부처님의 무서운 贊成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放逸하지 않고 종단의 尊嚴과 權威를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사부대중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존경하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옛 선인이 이르기를 "올타리 너머에 쫓아 보이는 것은 그 곳에 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불교도 그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성찰해보면 수많은 시대적 아픔과 역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때는 이러한 한국불교의 모습이 분규와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인의 질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역경을 넘어 부처님의 正法을 護持하는 如法한 종단건설과 사회대중을 이룩되게 하는 종단건설의 노력을 하도록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 열린종단 건설과 光明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동안 거듭되어온 일련의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보았을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우리 조계종단은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또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깊은 애정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加被가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기를 發願합니다.